



▶ 2005. 7. 배포
총 5 쪽

보 도 자 료

▶ 노동시장기구과 김민석 서기관
▶ ☎ 503~9749, 504~6728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lab.go.kr>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>

■ 「고용안정센터 이용객 크게 늘어」

- ▲ “실직자, 봉사활동을 통해 근로의욕 고취”
- ▲ “노동부,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, 신용회복지원자에 대해서도 고용서비스 제공”
- ▲ “떡 드시고 힘내세요” — 고용안정센터에서 산철미를 드립니다.

□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7.29(금) 15:00 노동부 대회의실에서 전국 지방노동청장 회의를 개최하였다

○ 서울, 부산청장 등 6개 지방청장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오늘 회의에서는

- 지난 5월부터 운영에 들어간 서울강남 등 전국 6개 시범 센터가 지역실정에 맞게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서로 발표하고 공유하는 한편

※ 전국 6개 센터(서울강남, 동인천, 청주, 대구, 부산, 광주)를 「고용 지원서비스 선진화 시범센터」로 지정·운영중

- 보다 많은 국민들이 고용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안 등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.

□ 이 자리에서 김대환 장관은

○ 최근 아시아나 파업 등 노사관계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

- 경제가 어려운 상황하에서는, 특히 “취약계층”이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언급하고

- 이 분들에 대해 고용지원 서비스를 더욱 철저히 해 나가야 할 것이며, 이를 위해 지방청장이 앞장서서 민원인들이 “고용안정센터가 달라졌다”고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줄 것을 독려했다

- 특히, 6개 시범센터는 노동부가 거듭나고 노동행정의 중심을 서비스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이니 만큼, 전국에 확산할 수 있는 성공모델을 창출할 것을 강조하였다.

□ 노동부에 따르면, 6개 시범센터는

-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개발하고, 청년층을 위한 직업적성검사, 취업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추진한 결과
- 시범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된 지난 5월과 6월, 2달동안, 센터의 이용도를 나타내는 구인·구직인원 및 취업자수가 전년 동월대비 각각 58.0%와 69.1% 증가하는 등 운영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다.

※ 이 기간동안 전국 센터는 평균 25.3%와 39.3% 증가

□ 한편, 오늘 회의에서는 각 지방청별로 시범센터 출범 이후, 자체적으로 개발한 사업들을 발표하였다.

- 이중 부산, 광주, 동인천 시범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

“실직자, 봉사활동을 통해 근로의욕 고취”

- 이제 실직자들도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중에 노인·아동 복지관 등에서 수행하고 있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면, “2주간에 한번씩 해야하는 구직활동을 면제” 받는다는 것이다.

※ 참여기관 및 봉사내용(부산) : 소화영아재활원(기저귀 널기 등), 호신 노인건강센터(노인 수발), 부산진구북지관(치매노인·지체장애인 보호 등)

※ 담당자 : 부산(정용섭), 광주(나은숙), 동인천(신현광)

- 이 제도는 비록 실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직자지만, 자신들보다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실직자 스스로가 근로의욕을 복돋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데 의의가 있다.
- 현행 실업급여 관련 규정에 따르면,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 실직자들은 2주에 한번씩 구직활동을 한 내용을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여, 승인을 받아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.

“떡 드시고 힘내세요” — 고용안정센터에서 인절미를 드립니다.

- 실의에 빠진 실직자들에게 힘을 내도록 고용안정센터가 인절미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.
- 오늘 점점회의시, 동인천 시범센터에서 발표한 “인절미 Day”, “자립고비 Day”에 의하면,
 - 고령 및 여성이라는 이유로 취업이 어려운 실직자들이 심한 좌절을 겪는 취약계층이라는 점을 감안하여
 - 프로그램 시작시 “인절미”를 제공하고 “노래부르기” 등으로 구직자들이 센터를 친근하게 느끼도록 하고, 이들에게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
 - 구직자분들이 직업을 찾겠다는 자신감을 높이고, 일하는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.

※ 현재까지 72명 참여

**“노동부,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, 신용회복지원자에 대해
서도 고용서비스 제공”**

- 노동부도 신용회복지원자에게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한다.
 - ※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는 신용불량자중에서도 부채 상환의 가능성이 높아 선정된 사람들로 일할 의욕도 상대적으로 강함
- 노동부 부산종합고용안정센터에 따르면,
 - 지난 6월부터 고용안정센터 직원이 직접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가서 신용회복지원자에게 구직표를 작성토록 하여 센터에서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
 - ※ 매일 신용회복위원회 교육에 참여(3-400명), 취업지원서비스 설명
 - 특히, 센터를 방문하는 구직자에 대해서는 특성별로 적성 및 직업심리검사를 제공하고 구직의욕을 높이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인 성취프로그램에도 참여토록 지원하고 있다.
 - 사업시행 1달여가 지난 지난 7월말 현재 약 120명이 구직 등록을 하여 취업알선서비스를 받고 있으며, 이중 10명이 취업에 성공하는 등 신용회복지원자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.
 - 노동부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하여, 8월부터 다른 센터에서도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.

□ 노동부는 앞으로도

-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2주만에 한번씩 센터를 찾아가서 구직활동을 승인받던 것을 구직활동이 더욱 내실화 되도록 구직활동기간을 1~4주로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개인별 심층상담과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중이며

○ 경총, 소상공인 지원센터, 장애인공단, 산업인력관리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민원인들이 고용안정센터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

- 고객중심의 원-스톱 서비스 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.

○ 이외에도, 노동부는 8월 1일부터 고용정보 시스템인 워크넷(Work-net)을 수요자에 맞도록 개편하여, 일자리·임금·장려금·훈련·직장체험 등에 관한 개인별 맞춤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

- 젊은 층(Youth-net)과 노인(Silver-net)을 대상으로 한 전용 Network도 개통할 예정이며

- CI 및 EI 작업을 추진하는 등 고용안정센터가 민원인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.

□ 한편, 노동부는 7.28(목)부터 1박 2일간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전국 6개 시범센터 센터장과 팀장(총 40여명)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여

○ 시범센터 3개월여간의 성과를 평가하고, 보완·발전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범센터가 성공모델을 창출,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.